

Life Care Partner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튼튼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함께 동행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동국대학교의료원 개혁추진단 발대식 개최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5월 1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자광 스님)을 개혁추진위원장으로 모신 가운데 개혁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혁추진위원회는 급변하는 의료 및 교육 환경에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동국대학교 의료부문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조직됐다.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개혁추진단의 단장으로 위촉하고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일산한방병원,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개혁을 주도하며, 전략과제 실행과 의견 자문 등은 추진단 산하에 전략과제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된다. 이날 발대식에서 자광 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불자와 스님들의 염원을 담아 건립된 병원으로 우리가 개혁을 안 하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라고 전하며, “현재의 위기와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미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해법을 함께 협조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향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경기도 서북부 지역 병원에서 전국 수준의 고난도 중증질환 대학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01년부터 약물의 적절한 사용과 오남용을 줄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약제급여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약제 적정성 평가 주요 항목으로는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및 호흡기, 근골격계 처방 건당 약품 수 등 5개 항목이며, 이번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특히,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20.3%(전체 평균 40.9%), 주사제 처방률 2.14%(전체 평균 16.8%) 등 대상기관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처방 횟수를 기록했다. 채석래 병원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필요한 환자에게 항생제와 주사제가 처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 국제관광 박람회 및 고양시 합동 의료설명회 참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국제진료사업과 관련하여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한 국제관광 박람회(KITF 2017)에 참가했다. 국제관광 박람회는 매년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러시아, 터키, 태국 등 총 32개국 330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고양시 대표단으로 참가하여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총 3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현지 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본원의 정형외과 최소 침습 척추 수술 및 양·한방 협진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행사 기간에 약 128여 건의 환자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한국불교병원과 합동으로 현지 환자를 진료하기도 하였으며, 정형외과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하는 등 KITF 행사 이외 추가 활동을 진행하여 현지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앞으로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적극적으로 국제진료사업을 확장하여 국제병원으로써 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어린이날 기념 선물 전달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어린이 병동과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방문하여 학용품과 과자 등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병원에 입원 중인 어린 환우들의 빠른 쾌유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는 것을 기원하며 자비와 희망도 함께 전달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지도법사 덕유 스님은 이날 포교사들과 함께 아이들을 찾아 선물을 전달했으며, 선물을 받은 부모와 아이들은 잠시 병마를 잊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한편,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은 서울지역단 어린이청소년팀으로 구성된 후원단체로 매년 어린이날 방문 행사를 펼치고 있다.



교직원 대상 잠복결핵검진 실시

2016년 8월 4일 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 및 학교, 영유아 시설 등 집단 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 되었다. 본원에서는 2016년 12월부터 전 직원에 대해 면역학적 검사인 인터페론 감마 분비검사(IGRA)를 시행하고 잠복결핵감염 직원에 대해 치료를 진행 중이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잠복결핵 감염은 치료 완료 시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약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과 전파 차단을 통해 안전한 병원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알 리 미

건강강좌

일시: 5월 17일(수) 14시 | 장소: 중산동 주민센터 | 주제: 관절염 | 강사: 한방침구과 김경호 교수
일시: 5월 18일(목) 13시 | 장소: 킨텍스 원시티 내 | 주제: 고혈압 | 강사: 심장혈관내과 이무용 교수

한방방문 무료진료

일시: 5월 17일(수) 14시~16시 | 장소: 중산 9단지 경로당
일시: 5월 19일(금) 14시~16시 | 장소: 덕양구보건소

희망걷기대회 의료지원

일시: 5월 20일(토) 12시~17시 | 장소: 동국대학교 만해광장